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공동체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 ② 경험은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곳을 여행해야 한다.
- ③ 대화에서는 소통이 중요하므로 상대방의 심리를 잘 고려해야 한다.
- ④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으므로 긍정적 사고방식을 지녀야 한다.
- ⑤ 보다 많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사물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가져야 한다.

2. (물음) 이 강연을 들은 청중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같은 사람에 대한 평가도 기업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군.
- ② ‘대나무 천장’은 아시아계에 대한 특별 대우를 의미하는군.
- ③ 아시아 기업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리더십을 우선시하는군.
- ④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군.
- ⑤ 미국 기업에서는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순종하는 직원을 선호하는군.

3. (물음) 선생님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학생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만큼 똑똑해져야겠군요.
- ② 좋은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겠군요.
- ③ 똑똑해지면 정보들을 굳이 구조화할 필요가 없겠군요.
- ④ 기계가 똑똑한 거지, 제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군요.
- ⑤ 똑똑해지는 데는 자료 확보가 제일 중요하군요.

4. (물음) 토론의 단계에 따른 전략을 분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론 단계		전략 분석
입론	찬성	전문가의 말을 활용하여 주장을 밝히고 있다. ①
	반대	사례를 들어 주장을 밝히고 있다.
반론	찬성	상대가 제시한 사례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밝혀 상대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 ②
	반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상대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 ③
최종 발언	찬성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
	반대	자신의 경험을 밝히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

5. (물음) 두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 ① 대형 애완견이 유기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 ② 대형 애완견은 온순하며 크게 낫지도 않는다.
- ③ 대형 애완견은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④ 대형 애완견을 키우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 ⑤ 대형 애완견은 작은 애완견보다 아파트에서 키우기 쉽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조언의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암벽 등반을 시작하기 전에 등반 경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보다 먼저 등반을 했던 사람들의 경로를 고려하면 좀 더 안전하게 등반을 할 수 있습니다. 경로가 결정되면 이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야 등반할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등반할 때는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이 많이 들어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암벽 등반은 무엇보다도 공포감을 버리고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벽 등반 전문가 -

- ① 도전할 분야에서 성공한 선배들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 ② 도전할 때는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 ③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다음 도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를 감안해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⑤ 도전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7. <보기>의 조건에 따라 글을 쓰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ㄱ. 그리움의 정서를 담을 것.
 ㄴ.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할 것.
 ㄷ. 도치의 방법을 사용할 것.

- ① 소슬한 바람에 나뭇잎 나뭇잎 날아오르고
기러기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내 발걸음 제자리에 머무네.
언제나 갈 수 있으려나? 뛰놀던 어린 시절 그 동산.
- ② 파란 하늘 위로 떠가는 하얀 구름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언덕 위 검은 바위만이 남아
어찌 알겠는가? 변함없는 자연의 유구함을.
- ③ 용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 뒤로
푸른 계곡 붉은 바위 사이사이로
하늘을 물들이네, 내일을 기약하며.
- ④ 보리밭 종달새 지저귀며 가슴 적시고
푸른 이랑 넘실거리는 그곳에서
기다리련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 순간을.
- ⑤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늘을 적시며 서 있었다.
때론 푸른 색으로 때론 붉은 색으로 찢을 듯 울부짖었지만
하늘은 늘 그 자리에서 바다를 품에 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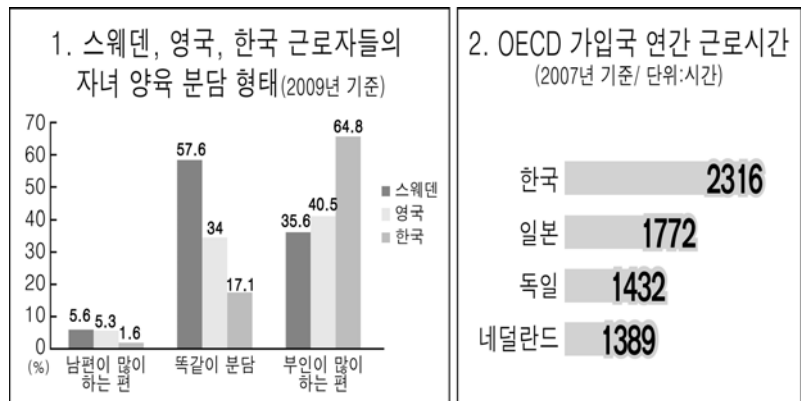
8. '취업 여성의 육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신문 기사

통계청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 상당수의 여성에게 남성과는 달리 심각한 노동 시장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경력 단절 현상'이라고 하는데, 여성에게 경력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여성이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신문 -

(나) 통계 자료



(다) 인터뷰

- 1.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데,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휴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곤란할 때가 많아요. 어린이집 선생님도 퇴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까지는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정말 난감하지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도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 취업 여성 A -

- 2. 저는 다행히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워낙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기다 보니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없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 취업 여성 B -

- ① (가)를 활용하여,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야겠어.
- ② (가)와 (나)-1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육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밝혀 육아 부담을 위해 육아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겠어.
- ③ (나)-2와 (다)를 활용하여, 장시간 노동 및 연장 근무가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임을 밝혀야겠어.
- ④ (가)와 (다)-1을 활용하여,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 시설을 증설하고 운영 시간을 연장해야 함을 주장해야겠어.
- ⑤ (나)-2와 (다)-2를 활용하여, 기업에서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특별 보육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제안해야겠어.

9. '농촌 지역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론 : 농촌 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

본론 :

I. 농촌 지역 환경오염의 요소 ㉠

1. 농촌 거주자들의 건강 악화

2. 농업 생산물의 안전성 위협

II. 농촌 지역 환경오염의 원인

1. 농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및 공업화

2. 비용해성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 ㉡

3. 농약 및 화학 비료를 이용한 영농 방법의 확산

4. 대규모 축산 폐기물의 관리 소홀

III. 농촌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

1. 농약 및 화학 비료 사용의 자제 촉구

2. 축산물 유통 구조의 개선 ㉣

3.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

결론 : 농촌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촉구

- ① ㉠은 하위 항목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촌 지역 환경오염의 폐해'로 고친다.
- ② ㉡은 상위 항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③ ㉢에는 'II-1'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촌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경적인 지역 개발'을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 ④ ㉣은 'II-4'의 내용을 고려하여 '축산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바꾼다.
- ⑤ ㉤은 글의 주제를 고려하여 삭제한다.

10. 밑줄 친 단어의 의미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연결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단어	문 장	대응 한자어
고치다	헤진 구두를 <u>고쳐</u> 신었다.	수정(修正) ①
	잘못된 버릇을 <u>고쳤다</u> .	교정(矯正) ②
	이 병원은 병을 잘 <u>고친다</u> .	치료(治療) ③
	계획을 대폭 <u>고쳤다</u> .	변경(變更) ④
	낡은 제도를 <u>고치기</u> 로 했다.	개혁(改革) ⑤

11. 다음은 체험 활동을 한 후 쓴 소감문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룡 알을 보러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공룡 알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설사 남아 ㉠ 있다 하더라도 형체는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과학 공부를 게을리 한 것 같아 ㉡ 후회됐다.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화석에 대한 안내원의 설명은 알아듣기 어려웠다. 공룡 알이 화석으로 남겨진 과정은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 평생에 공룡 알을 볼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하였다.

막상 현장에 가 보니 공룡 알이 아니라 공룡 알 화석이었지만 형체는 또렷하였다. 공룡 알 화석이 발견된 이곳은 본래 바다였다고 한다. ㉢ 이곳은 갈대 명소로도 유명하다고 했다. 이런 곳에서 아득한 시절의 공룡 알을 대면하니 공룡이 새삼 가깝게 느껴졌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에서 본 공룡 알 화석은 ㉣ 너무 신기했고, 까마득한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며 나는 묘한 감동에 젖었다.

- ①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의 순서를 바꾼다.
- ② ㉠은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있다면'으로 고친다.
- ③ ㉡은 맞춤법을 고려하여 '후회됐다'로 고친다.
- ④ ㉢은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⑤ ㉣은 부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말'로 바꾼다.

12. <보기>의 설명에 따라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한글맞춤법에서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가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로 적는 것 >

- 첩어인 명사 뒤
- 'ㅂ'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 '-하다'가 붙는 어근의 끝소리가 'ㅅ'인 경우

< '-히'로 적는 것 >

- '-하다'가 붙는 어근 뒤
- '-하다'가 붙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부사의 끝음절이 '히'로만 소리 나는 경우

- ① 손수건을 (고이/고히) 접었다.
- ② (곁곁이/곁곁히) 옷을 껴입었다.
- ③ (족이/족히) 열흘은 걸릴 것이다.
- ④ 그는 (느긋이/느긋히) 기다리고 있었다.
- ⑤ 할아버지는 그를 (각별이/각별히) 아꼈다.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맑고 거룩한 눈물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그 따사하고 살뜰한 별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여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에서 당신은
㉠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것이다
쓸쓸한 나들이를 단기려 온 것이다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 사람이여
당신이 그 긴 허리를 굽히고 뒷짐을 지고 지치운 다리로
싸움과 흥정으로 왁자지껄하는 거리를 지날 때든가
추운 겨울밤 병들어 누운 가난한 동무의 머리맡에 앉아
말없이 무릎 우 어린 고양이와 등만 쓰다듬는 때든가
당신의 그 고요한 가슴 안에 온순한 눈가에
당신네 나라의 맑은 한울이 떠오를 것이고
㉡ 당신의 그 푸른 이마에 빠여진 어갯죽지에
당신네 나라의 따사한 바람결이 스치고 갈 것이다

㉢ 높은 산도 높은 꼭다기에 있는 듯한
아니면 깊은 물도 깊은 밑바닥에 있는 듯한 당신네 나라의
하늘은 얼마나 맑고 높을 것인가
바람은 얼마나 따사하고 향기로울 것인가
그리고 이 하늘 아래 바람결 속에 퍼진
그 풍속은 인정은 그리고 그 말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울 것
인가

다만 한 사람 목이 긴 시인(詩人)은 안다
'도스토이엠프스키'며 '쥬이쓰'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일등가는
소설도 쓰지만
아모것도 모르는 듯이 어드근한 방안에 굴어 게으르는 것을
좋아하는 그 풍속을
사랑하는 어린것에게 옛 한 가락을 아끼고 위하는 안해에겐
해진 옷을 입히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낫설은 사람에게 수백 냥 돈을 거저 주는 그
인정을 그리고 또 그 말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뉘 하나를 얻는다는 크나
큰 그 말을

그 멀은 눈물의 또 별살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나들이를 온 사람이여
이 목이 긴 시인이 또 계사니*처럼 떠든다고
당신은 쓸쓸히 웃으며 바둑판을 당기는구려

- 백석, 「허준*」 -

* 계사니 : '거위'의 방언.

* 허준 : 평북 출신의 소설가로 백석의 절친한 친구.

(나)

침향(沈香)을 만들려는 이들은, 산골 물이 바다를 만나러 흘러내려 가다가 바로 ㉣ 따악 그 바닷물과 만나는 언저리에 굵직굵직한 참나무 토막들을 잡거 넣어 둡니다. 침향은, 물론 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잠근 참나무 토막들을 다시 건져 말려서 빠개어 쓰는 겁니다만, 아무리 짧아도 2~3백 년은 수저(水底)에 가라앉아 있는 거라야 향내가 제대로 나기 비릇한 다 합니다. 천 년쯤씩 잠긴 것은 냄새가 더 좋습시요.

그러니, 질마재 사람들이 침향을 만들려고 참나무 토막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내다가 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나 자기들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먼 미래의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후대들을 위해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는 이와 꺼내 쓰는 사람 사이의 수백 수천 년은 이 침향 내음새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그리운 것일 뿐, 따분할 것도, 아득할 것도, 너절할 것도, 허전할 것도 없습니다.

- 서정주, 「침향」 -

(다)

고운 별이 쪼였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
이어라 이어라
그물을 주어 두라 낚시를 놓으리까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탁영가(濯纓歌)*에 흥이 나니 고기도 잊을로다
<춘사(春詞) 5>

석양이 비졌으니 그만하여 돌아가자
돛 디어라 돛 디어라
버들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 삼공(三公)을 불리소냐 만사(萬事)를 생각하라
<춘사(春詞) 6>

방초(芳草)를 밟아 보며 난초 영지 뜯어 보자
배 세워라 배 세워라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실은 것이 무엇인고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 갈 제는 내뿐이오 올 제는 달이로다
<춘사(春詞) 7>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나리려다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낙홍(落紅)이 흘러오니 ㉦ 도원(桃源)이 가깝도다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인세 홍진(人世紅塵)이 얼마나 가렸나니
<춘사(春詞) 8>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탁영가(濯纓歌) : 굴원이 쓴 「어부사(漁父辭)」에서 어부가 부른 노래로, '탁영(濯纓)'은 '유유자적하는 삶'을 나타냄.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대상에 대한 예찬의 심정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는 자연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가)~(다)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가)~(다)에는 부재나 결핍으로 인한 고독감이 드러나 있다.

14. (가)를 영상물로 만들려고 할 때, 다음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당신'이 '왁자지껄하는 거리'를 '지치운 다리'로 지나가는 모습
- ② '당신'이 '병들어 누운 가난한 동무'를 찾아가 '말없이' 위로하는 모습
- ③ '당신'이 '어드근한 방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모습
- ④ '당신'이 '낯설은 사람'에게 '수백 냥 돈'을 주는 모습
- ⑤ '당신'이 '목이 긴 시인' 앞에서 '바둑판'을 당기는 모습

15.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처한 공간이고, ㉡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지속적으로 머물 공간이고, ㉡는 화자가 일시적으로 머물 공간이다.
- ③ ㉠은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고, ㉡는 화자가 공허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과 ㉡ 모두 화자의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이다.
- ⑤ ㉠과 ㉡ 모두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다.

1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감각적 이미지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는 동일한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음절 수를 조절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은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은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7.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어투를 구사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② '육수(陸水)와 조류(潮流)가 합수(合水)치는 속'은 일상에서 벗어난 탈속의 공간이다.
- ③ '침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다.
- ④ '그리운' 감정은 '꼬옥 그대로 바짝 가까이' 등의 시어로 강화된다.
- ⑤ '질마재 사람들'은 '침향'을 통해 시간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작가가 보길도에 은거하면서 네 계절을 10수씩 읊은 40수의 연시조이다. 각 계절의 작품은 출항에서 귀항까지 어부의 삶이 시간 순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구, 반복, 비유, 의성어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작가는 어부의 삶에 의탁하여 혼탁한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했다.

- ① 매 수의 둘째행의 여음구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 시간 순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지국총(至匆窓) 지국총(至匆窓)'과 같은 의성어는 노 젓는 소리를 떠올리게 하여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그물을 주어 두랴 낚시를 놓으리까'에서 어부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④ '취하여 누웠다가 여울 아래 나리려다'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⑤ '인세 홍진(人世紅塵)'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에서 혼탁한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다.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유’는 인간의 경험을 드러내고 개념화하는 인지 활동으로 목표 영역을 근원 영역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새롭고 추상적 경험 세계를 목표 영역이라고 하며, 기존의 구체적 경험 세계를 근원 영역이라고 한다.

- (가) 인생은 나그넷길이다.
- (나) 사랑에 빠지다.

(가)의 표현에서 ‘인생’은 목표 영역이며, ‘나그넷길’은 근원 영역에 해당하는데, 추상적이며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을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그넷길’을 통하여 개념화한 것이며, (나)에서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은 일상 생활에서 ‘액체에 빠지다’라는 구체적인 경험을 이용한 것이다.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 간의 대응 관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은유를 형성하는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의 경험은 대조적이다. 곧 근원 영역은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구조화된 경험인 반면 목표 영역은 추상적이며 불명확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한편 근원 영역은 낯고 진부한 세계인데 비하여 목표 영역은 새롭고 신선한 특징을 지닌다.

둘째, 은유에서 근원 영역과 목표 영역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이다. 곧 우리는 ‘나그넷길’에 의해서 ‘인생’을 개념화하지 ‘인생’에 의해서 ‘나그넷길’을 개념화하지는 않는다.

셋째, 근원 영역을 이용해서 목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두 영역의 개념적인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곧 ‘나그넷길’과 ‘인생’ 간에는 ‘출발점’에서 ‘종착점’이라는 여정이 있고, 여행의 동반자와 목적이 있으며 회로애락과 같은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이 두 개념 영역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해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은유란 우리에게 익숙한 근원 영역으로써 낯선 목표 영역을 개념화하는 인지 방법이다. 은유는 복잡한 개념에 간결성을 제공하며, 표현의 신선함을 부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은유는 일상 언어에 널리 퍼져 있으며, 나아가 추상적인 세계를 개념화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19.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은유의 개념은 무엇인가?
- ㄴ. 은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ㄷ. 은유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 ㄹ. 은유가 지닌 기능은 무엇인가?
- ㅁ. 은유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가?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논쟁은 전투이다.

- ① ‘전투’에 의해 ‘논쟁’이 개념화된 것이다.
- ② ‘논쟁’은 목표 영역이고 ‘전투’는 근원 영역이다.
- ③ ‘논쟁’과 달리 ‘전투’는 구조화되지 않은 경험이다.
- ④ ‘전투’는 명확한 경험이지만 ‘논쟁’은 불명확한 경험이다.
- ⑤ ‘논쟁’과 ‘전투’의 두 개념 영역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

21. 위 글을 읽고 ‘은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두 대상 간의 외형이 닮아야 가능한 것이다.
- ② 어휘가 지닌 사전적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 ③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 ④ 낯선 대상을 익숙하게 바꿔 표현하는 것이다.
- ⑤ 문학적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22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19 주막의 방안
(떡 벌어진 주안상. 송구스레 술잔을 따라주는 조 씨.)
허 주부 : 흐흠.....
(눈을 깜짝깜짝, 염소수염을 쓸어내린다.)
허 주부 : 그러니까 유진이는 미국에서 이쪽 사정을 꿈에도 모르고 있더라고?
조 씨(유진의 홀어머니) : 예.
허 주부 : 그러니까 색시 택도 매일반이로 모를 티고.....
조 씨 : 예.
허 주부 : 안죽도 황보국이네 기와집서 땡땡거리고 자알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씀여. 흐흠.....
(술잔을 또 훌쩍 들이킨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피가 나오길 굴뚝같이 기다리는 조 씨와 윤 영감.)
허 주부 : 흐흠, 그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로군.
윤 영감(우편 배달원) : 무슨 좋은 의견이 없능고?
(허 주부, 염소수염 쓸어내리며 장시간 심사숙고 끝에-)
허 주부 : 에헴, 인자 쏟아진 물인디 으짤 것이요. 지금 살고 있는 황보국이헌티 사정허고 집을 빌려 잔치를 치를 수밖에.....
윤 영감 : (금세 밝아진 표정으로 무릎을 치며) 하모, 하모.

S#20 황 부자 집 안마당
(심통 사나운 얼굴로 떠억 버티고 서 있는 황 부자. 그 앞에 쭈뼛쭈뼛 오금을 못 펴는 세 사람.)
허 주부 : ㉠ 그러닝께 자네가 옛날 강 참판 댁 사정을 봐서라도 잉?
황 부자 :
허 주부 : 자네가 인심 한번 후하게 쓰는 날이면.....
황 부자 : (버럭) 아, 천금 걸은 내 돈 주고 산 집인디, 그것 이 뭇 소리여!

윤 영감 : (당황해) 황 주사 어른, 잔칫날 하루만이라도.....
 황 부자 : 어따, 그따우 소리 다신 말드라고!
 (절레절레 고개 짓고 핑하니 돌아 들어간다.)
 허 주부 : (따라가며) 여, 여보게.....
 (그러나 사랑방 문 탁 닫는 바람에 그만 주먹 맞은 감투 풀이 되고 마는 허 주부.)

[중략 부분의 줄거리] 황 부자는 동네 사람들의 성화에 결국 유진의 혼사를 자신의 집에서 치르도록 허락한다. 마을 어른들은 황 부자 집 사랑채에 모여 혼사 준비에 대해 열띤 논의를 하는데, 혼사 비용 문제가 제기되자 모두 말이 없어진다.

S#50 서낭당 아래

(기괴한 모습의 거목. 울긋불긋 새끼줄 쳐 있고 그 아래 돌무더기. 조 씨 지나가다가 생각난 듯 다가와 돌 한 개 올려놓고 정성스레 절을 올린다.)

조 씨 : 성황님, 성황님...... 굽어 살펴 응감하옵소서...... 강 씨 장손 유진이가 혼사를 치른다는데 모든 준비도 안 되었고, 동리 사람들이 나서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니 참말 고맙고, 예미 된 마음에 송구스럽어 몸둘 바를 모르겠으라우.

(㉠ 두 손 짹짹 빌며 정성껏 치성을 올리는 조 씨. 이윽고 성황님이 굽어보셨는지 갑자기 바람이 불어 가만있던 거목이 심하게 흔들린다.)

S#51 황 부자 집 사랑채 안

소리 : 옹거니.
 (허 주부가 무릎을 친다. 마을 어른들의 기대 어린 눈길들이 일제히 쏠려 오면.)
 허 주부 : 윤 주사 어른, 나 좀 봅시다.
 (의아해하는 윤 영감을 끌고 나간다.)

S#52 뒤결

(윤 영감을 끌고 오는 허 주부. 건넌방 앞으로 살금살금 오더니)
 허 주부 : 윤 주사께서 읍내엘 좀 다녀오셔야 쓰것으요.
 윤 영감 : 다녀오라든 다녀오겠지만......
 (㉡ 허 주부, 윤 영감의 입을 막으며 무조건 대답만 하라고 손짓한다. 영문 모르는 채 고개 끄덕이는 윤 영감. 허 주부 허리춤에서 신문지 꺼내 돌돌 말아 쥐고 탁탁 치며)
 허 주부 : 이걸 내가 모은 저금통장인데..... 오십만 원이 조금 넘소!
 (눈이 뚱그레지는 윤 영감.)

㉢ S#53 건넌방 안

(삼층 자개장롱 앞에 치부책 정리하고 있는 황 부자, 귀가 쫑긋해진다.)
 허 주부 : (소리) 이 저금통장을 갖고 가 몽땅 찾아다 주씨요.
 (살금살금 장지문 가까이 다가가는 황 부자.)

S#54 뒤결

윤 영감 : 예? 예......
 허 주부 : (약간 소리 죽여) 이번 혼사 비용일랑 일체 내가 말

기로 했소. 색시댁이 엄청난 부자라는데, 난두 이통에 한밀친 장만히야 쓰겄소.

윤 영감 : 예, 예......
 허 주부 : 이번 혼사 끝나면 유진이한테두 큰 재산이 생기는 모양이오. 유진 엄니하구두 약조를 끝냈는데, 혼사 끝나는 대루 두 곱 쳐서 받기로 했단 마시.
 (윤 영감 그제야 알아채고)
 윤 영감 : 아, 예, 예...... 지금 당장 다녀올 끼요. 염려 마소.

S#55 건넌방 안

(순간, 더럭 욕심이 나는 황 부자.)
 허 주부 : (소리) 이 말일랑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오잉?
 윤 영감 : (소리) 알았소.
 허 주부 : (소리) ㉣ 더구나, 황 부자 녀석헌티는 절대 비밀 지키시오잉? 절대로.
 윤 영감 : (소리) 염려 마소.
 (불같은 욕심이 치밀어 오른 황 부자.)
 황 부자 : 저.....저런 여시 같은 놈이.....
 (불끈 일어난다.)

- 윤삼육, 「잔치」 -

22.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윤 영감은 유진의 혼사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다.
- ② 황 부자는 이전부터 조 씨와 유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 ③ 조 씨는 유진의 혼사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 ④ 유진은 자기 집이 지금은 황 부자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⑤ 허 주부는 유진의 혼사 비용 문제에 황 부자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23.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토의를 할 때, ㉠ ~ ㉣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허 주부는 황 부자의 위세에 놀려 주눅 든 표정으로 사정하듯 말해야 합니다.
- ② ㉡ : 거목이 조 씨를 바라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카메라를 절을 하는 조 씨의 정면 위쪽에 설치해야겠어요.
- ③ ㉢ : 허 주부와 윤 영감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빠르고 강렬한 느낌의 음악을 삽입해야겠어요.
- ④ ㉣ : 이 장면에서는 황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치부책을 클로즈업 해야겠어요.
- ⑤ ㉤ : 허 주부는 약간 소리를 죽여 황 부자 쪽을 향해 또렷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24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창작할 때 작가가 고려했을 점을 추측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장면 [A]에서 장면 [B]로 전환될 때, 장면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A]의 인물의 대사와 행동이 [B]의 다른 장소에서 이어지기도 하고, [A]의 인물의 대사에 언급된 화면 밖의 인물이 [B]의 처음에 등장하기도 한다. 또 [A]의 인물의 행동과 대사에 대해 [B]에서 다른 인물이 이에 반응하는 장면이 이어지면 두 장면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연속성을 지니게 된다.

- ① #19에서 허 주부가 언급한 황 부자를 #20의 처음 장면에 보여주면 사건의 흐름이 자연스러울 거야.
- ② #50의 조 씨의 대사가 #51에서도 이어지게 해서 두 장면이 연관되어 있음을 드러내야겠어.
- ③ #51의 허 주부의 행동이 #52에도 이어지게 하여 장소가 이동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야겠어.
- ④ #53의 황 부자가 #52에서 이어지는 대화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어.
- ⑤ #54의 허 주부는 #53의 황 부자의 행동을 예상하여 목소리를 낮추어 대사를 하도록 해야겠어.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진화론은 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개인과 집단에 적용시킨 사회 이론이다. 사회 진화론의 중심 개념은 19세기에 등장한 ‘생존 경쟁’과 ‘적자생존’인데, 이 두 개념의 적용 범위가 개인인가 집단인가에 따라 자유방임주의와 결합하기도 하고 민족주의나 제국주의와 결합하기도 하였다.

1860년대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 진화론자인 ㉠ 스펜서는 인간 사회의 생활은 개인 간의 ‘생존 경쟁’이며, 그 경쟁은 ‘적자생존’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스펜서는 가난한 자는 자연적으로 ‘도태된 자’이므로 인위적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고, 빈부 격차는 사회 진화의 과정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가 확장되던 영국과 미국에서 자유 경쟁과 약육강식의 현실을 정당화하고, 개인주의적 정서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19세기 말 ㉡ 키드, 피어슨 등은 인종이나 민족, 국가 등의 집단 단위로 ‘생존 경쟁’과 ‘적자생존’을 적용하여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법칙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종 차별이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였다. 우생학과 결합한 사회 진화론은 앵글로·색슨 족이나 아리아 족의 문화적·생물학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지지함으로써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세기 말 ㉢ 문명 개화론자들이 사회 진화론을 수용하였다. 이들은 ‘생존 경쟁’과 ‘적자생존’을 국가와 민족 단위에 적용하여 ‘약육강식’·‘우승열패’의 논리를 바탕으로 서구식 근대 문명국가 건설과 군국주의를 역설하였다. 나아가 세계적인 대세에 잘 적응한 일본이 경쟁에서 뒤처진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주장을 전개했는데, 이는

나중에 식민사관으로 이어졌다.

사회 진화론은 구한말 개화파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 윤치호 같은 일부 개화파는 강자에 의한 패배를 불가피한 숙명으로 인식함으로써 조선 망국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 박은식, 신채호 등 민족주의자들은 같은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서구 열강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자강론의 근거로 삼았다.

25 위 글의 중심 화제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조선과 일본의 근대화 과정
- ② 사회 진화론의 한계와 전망
- ③ 사회 진화론의 형성과 수용 양상
- ④ 생물 진화론과 사회 진화론의 관계
- ⑤ 사회 진화론이 제국주의에 미친 영향

2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19세기 말 사회 진화론은 강대국보다는 약소국에서 더 환영 받았다.
- ② 일본과 구한말 조선에서는 주로 개화론자들이 사회 진화론을 수용하였다.
- ③ 사회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 ④ 사회 진화론은 다른 학문들과 결합하면서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했다.
- ⑤ 스펜서는 ‘생존 경쟁’과 ‘적자생존’을 개인 간의 자유 경쟁에 적용하여 개인주의적 정서를 강화하였다.

27 <보기>에 대한 ㉠~㉤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세기 말 일본에서 근대화된 방직 기계로 대량 생산된 면 제품이 들어오면서 재래식 기계로 옷감을 짜는 조선의 수공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제 막 공장을 갖추어 가던 조선의 수공업자들은 도산하였으며, 이들의 도산으로 면화 재배 농민들도 잇달아 몰락하였다.

- ① ㉠ : 자유 경쟁 시장에서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도태된 조선인들을 도와주면 안 되겠군.
- ② ㉡ : 생물학적으로 열등한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겠군.
- ③ ㉢ : 일본이 조선보다 앞서 서구식 근대 문명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군.
- ④ ㉣ : 기계 공업에 밀려 수공업자들과 농민들이 몰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숙명이군.
- ⑤ ㉤ :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민족이 힘을 키워 경쟁에서 승리해야겠군.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965년 미국 벨 전화 회사의 연구원인 펜지어스와 윌슨은 안테나를 이용하여 장거리 무선 통신 및 우주 전파 신호를 탐사하던 중 일정한 세기의 전파 잡음이 항상 잡힌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이 잡음이 우주로부터 하늘의 모든 방향에 걸쳐 거의 동일한 세기로 지구로 날아오는 신호라는 것을 알아냈지만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과학자들은 대폭발로 생성된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 갔다면 현재 우주에 남아 있어야 할 어떤 빛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 빛을 찾고 있었다.

대폭발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약 137억 년 전 밀도와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의 대폭발로부터 시작하였다고 본다. 대폭발 초기 3분 동안 광자, 전자, 양성자(수소 원자핵) 및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 및 헬륨 원자핵은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와 결합하여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만들려고 하지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핵에 쉽게 붙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우주 탄생 초기에는 전자가 양성자에 붙들리지 않은 채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움직여 다닐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양성자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전자를 자유 전자라고 하는데, 대폭발 초기에 빛은 자유 전자에 의해 물질 속에 갇혀 물질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빛이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우주는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 이후로 우주가 계속 팽창했고 우주 탄생 후 약 40만 년이 지나자 자유 전자들의 간격이 벌어져 빛이 그 틈새로 빠져나가게 되어 우주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또 이때 우주의 온도가 3,000K* 아래로 내려가 자유 전자가 양성자 및 헬륨 원자핵에 붙들려 결합되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빛의 경로를 가로막던 자유 전자라는 장애물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자 빛은 물질과 분리되어 아무 막힘없이 우주 공간 속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우주가 완전히 투명해진 시점이며 이때를 '재결합 시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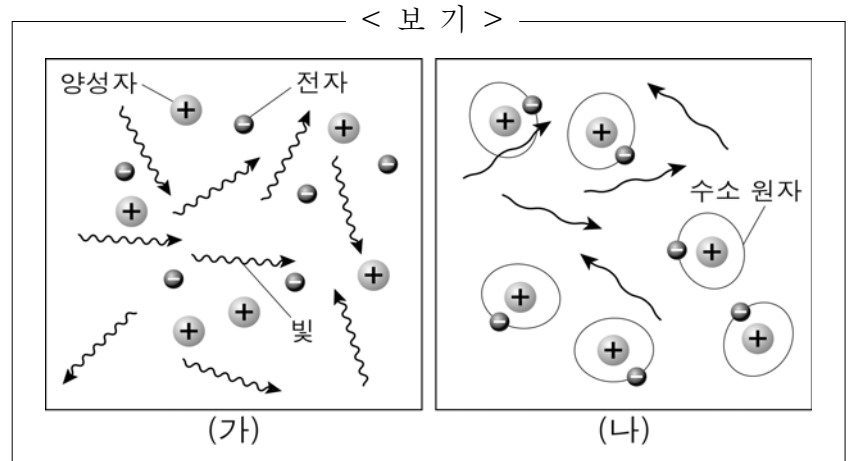
이 시기에 자유 전자에 가로막혀 있던 수많은 빛이 자유로운 항해를 시작하여 우주 전체로 균일하게 퍼져 나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는 만들어질 당시의 온도가 3,000K였다가 지구로 날아오는 동안 ㉠ 우주의 팽창과 함께 계속 식어서 현재 2.7K까지 내려갔다. 즉, 아주 뜨거웠던 대폭발 우주의 흔적이 오늘날 매우 차가워진 우주 배경 복사로 남아 있는 것이며, 재결합 당시보다 약 1,100배 낮은 온도인 바로 이 신호가 펜지어스와 윌슨에 의해 전파 잡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은하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만들어져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지구로 날아오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는 대폭발 우주론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 K : 절대 온도(켈빈 온도)의 단위. 0K는 -273.15℃.
* 복사(輻射) : 물체로부터 열이나 전자기파가 사방으로 방출됨.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은하가 형성되지 않았다.
- ②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는 우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원자이다.
- ③ 펜지어스와 윌슨은 우주 대폭발로 남겨진 어떤 빛을 찾고 있었다.
- ④ 우주가 탄생하고 약 40만 년이 지나서 빛과 물질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 ⑤ 우주 배경 복사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동일한 세기로 날아오고 있다.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보다 온도가 높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불투명하다.
- ③ (나)는 (가)에 비해 밀도가 낮다.
- ④ (나)는 (가)보다 전자의 움직임이 빠르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빛의 움직임이 자유롭다.

30. ㉠의 현상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끓는 물을 차가운 유리컵에 부으면 유리컵이 깨진다.
- ② 입을 오므리고 입김을 세게 불면 찬바람이 되어 나온다.
- ③ 찌그러진 탁구공을 따뜻한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퍼진다.
- ④ 여름철 낮에 지열에 의해 팽창됐던 타이어가 밤이 되면 수축한다.
- ⑤ 전깃줄이 더운 여름에는 아래로 처지고, 추운 겨울에는 팽팽해진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D 프린팅은 대상이 되는 3차원 물체의 형상을 실제로 ㉠ 재현하는 기술이며, 3D 프린팅을 실현하는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부른다. 3D 프린팅을 위해서는 물체의 표면을 3차원 공간에 표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형 제작을 위한 컴퓨터와 3D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이다. 물론 3D 스캐너를 활용하여 실제 존재하는 물체의 데이터를 얻는다면 이를 3D 프린팅의 데이터로 사용할 수도 있다.

3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얻게 되는 데이터는 물체의 표면을 일반적으로 폴리곤 메시(polygon mesh)로 나타낸다. 폴리곤 메시는 ㉡ 다각형을 서로 이어 붙인 형태로 면을 나타내는데, 기본 도형으로 삼각형이나 사각형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폴리곤 메시로 나누어진 다각형들의 꼭짓점을 X, Y, Z ㉢ 세 방향의 공간 좌표값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좌표값을 매겨야 할 꼭짓점의 수가 많아지면, 데이터의 양은 늘어난다. 폴리곤 메시 데이터는 다시 물체를 얇은 층의 적층물 형태로 표현하는 데이터로 ㉣ 변환하여야 한다. 폴리곤 메시의 좌표값을 이용하여 아래층부터 위층으로 순서대로 각 층의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 데이터를 만든 후에는 이를 3D 프린터에 전송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물체를 어떤 재료로 어떤 방식에 의해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3D 프린팅을 ㉥ 구현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액체 상태에서 빛을 받으면 딱딱하게 굳는 광경화성수지를 사용하여 층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 고체의 재료를 사용해서 조각하듯이 재료를 레이저로 녹이는 3D 프린터도 있다.

이 중에서 광경화성수지를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처럼 액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수지를 프린터 내부에 있는 판에 머리카락의 십분의 일 정도의 두께로 미세하게 ㉧ 도포하여 물체의 층을 만든다. 프린터 헤드에서 분사된 액체 상태의 원료는 헤드 양옆에 달려 있는 자외선 램프에 의해 ㉨ 분사 직후 굳는다. ㉩ 이렇게 굳은 층 위에 또다시 원료를 분사해 다른 층을 쌓아 올린다.

최근에는 조형 예술가들도 3D 프린팅을 이용해 작품의 모양을 미리 보기도 한다. 산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로 디자인한 제품을 완성품과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면 거리와 관계없이 아주 짧은 시간에 견본품을 전송해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다. 3D 프린팅을 이용하는 분야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일상생활 용품의 제조부터 자동차, 우주항공, 예술, 의료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31. 위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 ① 3D 프린팅의 개념
- ② 3D 프린팅의 방식
- ③ 3D 프린팅의 재료
- ④ 3D 프린팅의 용도
- ⑤ 3D 프린팅의 발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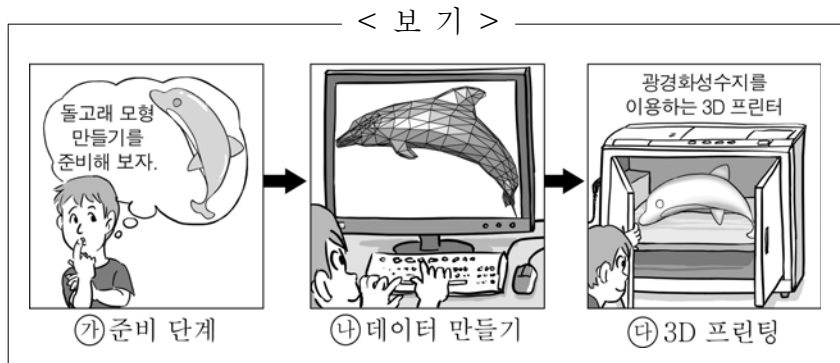
32. ㉠~㉦ 중 <보기>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 < 보 기 > —

1890년대 블랜더(Blather)는 왁스 평판에 등고선을 각인하고 잘라내어 한 장 한 장 적층하여 3차원 입체 모형 지도를 만들었다. 비슷한 원리로 1930년대 페레라(Perera)는 마분지를 잘라 적층 후 압착하여 3차원 모형 지도를 만들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3. <보기>는 ‘3D 프린팅’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단계에서는 모형 제작을 위한 3D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3D 프린터를 준비한다.
- ② 나 단계에서는 3D 프린팅의 재료 상태가 고체인지 액체인지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만든다.
- ③ 다 단계에서 데이터 표면을 표현하는 도형의 한 개당 크기를 작게 만들수록 데이터의 양이 많아진다.
- ④ 라 단계에서는 3D 프린터에서 물체를 얇은 층의 적층물 형태로 표현하는 데이터로 변환해야 한다.
- ⑤ 레 단계에서는 액체를 고체로 굳히는 데 자외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34.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재현(再現) : 다시 나타냄.
- ② ㉡ 변환(變換) : 다르게 하여 바꿈.
- ③ ㉢ 구현(具現) :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
- ④ ㉣ 도포(塗布) : 약 따위를 겉에 바름.
- ⑤ ㉤ 분사(噴射) : 물기나 습기를 말려서 없앴.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쇠라는 1884년에 열린 독립전에 「아스니에르에서 물놀이하는 사람들」을 전시했다. 이 전시회에서 자연주의 작가와 무정부주의적인 비평가와 예술가들은 쇠라에게 찬사를 보냈다. 작가 겸 비평가 펠릭스 페네옹은 쇠라의 작품을 위해 ‘신인상주의’라고 칭했다. 과연 쇠라는 어떤 그림을 그렸기에 찬사와 함께 ‘신인상주의’라는 말을 들었을까?

(나) 쇠라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상주의를 알아야 한다. 인상주의 이전까지의 화가들은 사물에는 고유한 색이 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상주의자들은 태양 광선에 따라 사물의 색채가 수시로 변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려고 했다. 하지만 물감을 혼합하는 방법은 색채를 탁하게 하기 때문에 태양 광선으로 빛나는 자연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은 팔레트에 색을 섞지 않고 원색의 물감을 화면에 직접 덧칠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색이 혼합되는 효과를 노렸다. 특히 모네는 이런 인상주의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냈다.

(다) 하지만 인상주의자들은 사물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덧칠하듯이 그렸기 때문에 붓질이 거칠고 덜 그린 듯이 보였다. 뿐만 아니라 색채 사용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화폭에서 물감이 섞이기 때문에 색채가 여전히 탁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쇠라는 이를 해결하고자 과학자에 의해 탐구된 색채 이론을 연구한 뒤, 색채에 대한 일관된 법칙에 따라 세심하게 ㉠ 원색의 물감을 화폭에 점으로 찍었다. 이는 태양 광선을 원색으로 분할한 뒤 그 원색을 화폭에 작은 점으로 찍음으로써 사람의 망막에서 시각적으로 혼합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 기법은 색채를 섞지 않고 점을 찍는다는 의미로 ‘점묘법’이라고 불린다.

(라) 인상주의자들은 색채에 지나치게 집착해 순간적인 인상을 감각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르네상스 이래 고전적인 전통이 된 구성이라든지 형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쇠라는 이를 해결하고자 고전적 전통인 구도, 비례, 원근법 등을 연구하였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데생을 수십 번씩 하면서 사물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배치하여 이상적인 구성과 형태를 만들려고 했다. 즉 개별적 사물의 특징보다는 보편적인 특징을 추출하려고 했다. 이로 인해 쇠라 그림의 화폭 속 인물들은 표정이 없으며 개성적인 신체 특징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마) 쇠라는 인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반 고흐, 고갱 등이 모두 그의 그림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마티스, 드랭 등의 야수파 화가들은 신인상주의적 색채 이론을 자신의 그림에 적용했다. 또한 들로네, 메캉제, 세베리니 등도 운동감과 활력을 표현하기 위해 점묘법을 실험했다. 그리하여 쇠라는 20세기 초 입체주의를 비롯한 기하학적 추상 미술의 바탕이 되면서 20세기 미술을 ㉡ 연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3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쇠라의 그림이 찬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글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나) : 인상주의 그림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쇠라의 그림에 대한 설명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③ (다) : 쇠라의 그림과 비교하면서 인상주의 그림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④ (라) : 인상주의 그림에 내재한 한계를 쇠라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 쇠라의 영향을 받은 후대 미술가들을 나열하면서 20세기 미술에서 쇠라가 갖는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3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감상할 때는 화가가 자신의 눈에 비친 순간적인 인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군.
- ② ㉡를 감상할 때는 작품 속 인물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표정과 신체적 특징에 주목해야겠군.
- ③ ㉠에 비해 ㉡를 감상할 때는 작품 속 대상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군.
- ④ ㉠과 ㉡를 감상할 때는 혼합색이 아닌 원색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군.
- ⑤ ㉠과 ㉡를 감상할 때는 시각적으로 색이 혼합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군.

3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폭에서 점이 찍히지 않은 흰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 ② 원색의 물감을 적게 사용하여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이다.
- ③ 화폭에서 물감이 섞여 색채가 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④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여 입체적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이다.
- ⑤ 원색의 점을 모자이크처럼 처리하여 빛이 잘 반사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8.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수환은 학생들에게 마음을 열었다.
- ② 경희는 가방을 열고 화장품을 꺼냈다.
- ③ 진영은 가게 문을 오전 10시에 열었다.
- ④ 인류는 농경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 ⑤ 학급회장은 회의를 열고 학급 문제를 의논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하생은 재주가 뛰어났으나 벼슬을 못하고 울적한 날들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하생은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 남문 밖에 있는 한 여인과 인연을 맺고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다음 날 여인은 자신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된 귀신임을 밝히면서, 자기 대신 무덤에서 나가 금척(金尺)을 하마석(下馬石) 위에 놓아 달라고 부탁한다. 하생이 무덤에서 나와 시킨 대로 하자, 여인의 집 비복들이 하생을 무덤 도둑으로 의심하여 여인의 부모 앞에 끌고 간다. 하생은 여인의 아버지인 시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고한다.

시중이 말했다.

“그렇군. 즉시 삽과 삼태기를 준비하고 가마를 대령해라. 내가 직접 가 봐야겠다.”

시중은 하인 몇 명을 남겨 하생을 지키게 하고 길을 나섰다. 잠시 후 묘역에 이르러 보니 봉분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었다. 시중은 의아히 여겨 무덤을 파 보았다. 무덤 속의 딸은 안색이 산 사람과 같았다. 심장 있는 쪽을 만져 보니 조금 온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중은 유모를 시켜 딸을 안게 하고 가마에 태워 돌아왔다. 무당이나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어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할 따름이었다. 해질녘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다.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 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느냐?”

“저는 꿈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차 캐묻자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온 집안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랐다. 이제 하생은 그 집 사람들에게 매우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은 평상시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시중은 하생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시중은 하생의 집안에 대해 묻고, 또 하생이 혼인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하생은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부친은 평원(平原) 고을의 유생으로 오래 전에 작고하셨다고 대답했다. 시중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의논하였다.

“하생의 용모와 재주가 참으로 범상치 않으니 사위로 삼는다 해도 문제될 건 전혀 없겠소만 집안이 서로 걸맞지 않는구려. 더구나 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괴상망측하고 보니 이 일을 계기로 혼인을 시켰다가는 세상 사람들의

[A]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싶소. 그래서 나는 그냥 재물이거나 후하게 주어 사례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싶소.”

부인이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이 결정할 문제인데, 아녀자가 어찌 나서겠어요?”

하루는 시중이 또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며, 하생의 소원을 물었는데 혼사에 관한 언급은 일체 없었다. 하생은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을 태우며 약속을 저버린 여인을 원망했다. 하생은 곧바로

절구 한 편을 지어 작은 종이에 쓰더니 여인의 유모더러 여인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생의 시는 다음과 같다.

[B] 옥에 티끌이 묻었다 해서 더럽혀질 건 없나니
동지로 돌아간 봉황새가 난새를 다시 돌아볼 리 있겠는가.
팔뚝 위의 눈물 자국 사라지지 않았거늘
꿈속의 좋았던 만남 지금 외려 부끄럽네.

여인은 하생의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간의 사정을 묻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인은 그 즉시 병들었다며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부모가 딸의 속마음을 짐작하고 병이 난 이유를 묻자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모님의 큰 잘못을 남의 일인 양 원망하지 않는 것도 불효요, 부모님의 작은 잘못을 지나치게 따지는 것도 불효입니다. 남의 일인 양 소원하게 대할 수 없어 말씀드리려는 건데, 지나치게 따지는 일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부모가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아라. 숨길 것이 무어 있겠느냐?”

여인은 비녀와 귀걸이를 빼고 일어나 절한 뒤 죄를 청하며 말했다.

(중략)

아버지 어머니시여 / 지금부터 이제 / 다복하시기를 바라신다면 / 자손을 편안하게 해 주세요. / 어찌 운명을 거역하시며 / 제 마음을 몰라주시나요. / 기러기 화려하게 우는 / 해 뜨는 아침에 혼례를 올리고 싶어요. / 아리따운 처녀 혼기가 찼으니 / 길일을 놓치지 말았으면 해요. / 우리 둘 다시 만나는 게 / 저의 소원이고 저의 도리예요. / 백주(柏舟)* 시로 맹세하나니 / 다른 마음 품지 않으려 해요. / 이리 될 줄 알았다면 / 살아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거예요. / 공강의 혼령 있으리니 / 그와 손잡고 함께 갈까 해요.

시중은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진실하지 않고 자애롭지 못해 너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구나! 지금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월하노인*이 붉은 실을 밧에 묶어 이미 정해진 운명인 터이니 네 뜻대로 해야겠다.”

- 신광한, 「하생기우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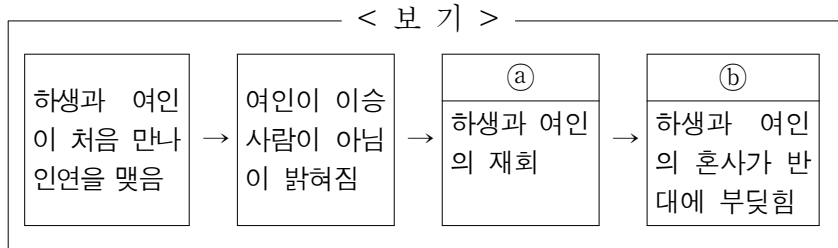
*백주(柏舟) : 위(衛)나라의 세자 공백이 죽은 후 그 아내 공강이 수절하고자 하는 굳은 마음을 표현한 노래.

*월하노인(月下老人) :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노인.

39.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시중은 딸이 환생한 후에도 하생의 사람됨을 의심하였다.
- ② 하생과 여인은 모두 무덤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 ③ 부인은 딸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 ④ 하생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 ⑤ 여인은 부모님의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믿고 있다.

40.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생은 여인의 부탁대로 행동하여 ㉠을 하게 되었군.
- ② ㉡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여인의 아버지 탓이로군.
- ③ 여인은 부모님을 설득하여 ㉡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군.
- ④ 두 사람이 ㉡를 겪게 될 것을 여인은 ㉠에서 이미 알고 있었군.
- ⑤ ㉡는 혼인에 장애가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군.

41. [A]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1점]

- ① 부창부수(夫唱婦隨) ② 이심전심(以心傳心)
- ③ 언감생심(焉敢生心) ④ 전전공공(戰戰兢兢)
- ⑤ 천정배필(天定配匹)

42. [B]가 작품 속에서 하는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주인공의 숨은 능력을 보여 준다.
ㄴ. 주인공의 처지와 심리 상태를 드러내 준다.
ㄷ. 주인공이 미래에 겪어야 할 일을 미리 암시해 준다.
ㄹ. 주인공이 겪는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
|---|--|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3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6·25 전쟁 중, 서른셋의 철학 교수인 경석은 아내인 혜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원입대한다. 혜란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경석을 기다린다. 경석은 총상을 입어 서울에 있는 국군 병원으로 호송된다. 혜란에게 면회 오라는 편지를 보내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분대에서 친하게 지내던 명룡이 옆 침대로 들어온다.

아침 내내 두 팔을 베개로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던 이명룡은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불쑥 이렇게 물었다.

㉠ “경석아, 너 진짜 대학교수가?”

그 표정 없는 얼굴에 입을 약간 벌린 명룡. 경석은 농으로 받았다.

“건 왜 물어?” / “그저 물어 보는 거지.”

명룡의 얼굴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경석은 농으로 받은 것을 누우쳤다. 무표정 뒤에는 표정을 불허하는 간곡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A] “명룡아.” / “응?”

이명룡은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너, 내 동생 돼 줄래?”

이번에는 입을 꼭 다물고 대답이 없었다.

“.....”

침묵이 흘렀다.

“왜 대답이 없어?” / “시시한 소리 그만둬.”

“.....”

경석은 말문이 막혔다.

계원은 짜증을 냈다.

㉡ “결재가 안 났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시우?”

도강증*을 내리 매일 내왕한 끝에 혜란은 더욱 초조하기만 하였다. 내일 오라, 모레 오라, 결재가 안 났다. - 이런 식으로 열흘이 지났다. 초조한 심사로는 쏘아붙이고도 싶었으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영영 안 나올 것만 같아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공손히 물었다.

“그럼 언제쯤 와 볼까요?”

문서를 보는 계원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B] “글쎄, 언제라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혜란은 암담하였다. 발을 구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정이 급해서 그래요. 전에두 말씀드렸지마는 일선에서 부상당한 환자가 죽어가나봐요.....”

말끝이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다.

“사정이야 뭐 댁에만 있는가요?”

혼자 중얼거리듯 하면서 계원은 일어서 저쪽으로 사라졌다. ㉢ 멍청하니 뒷모양을 바라보다가 혜란은 돌아서 밖으로 나왔다. 현관에 나서니 눈물이 금시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는 변소로 얼른 달려갔다.

침대에 누운 명룡은 천천히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물었다. “너 뭘 하러 전쟁에 나왔댐니?”

무표정한 얼굴은 입을 비스듬히 벌린 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난하던 과거를 담은 그 눈초리에는 어떤 쓸쓸함이 고여서 경석의 눈으로 들어오고 이어서 가슴에 퍼졌다. 경석은 대답이 없었다. ㉣ 말이란 너무나 빈약한 연장이었다.

“우리 같은 거야 아깝지 않은 농군이니까 무더기루 쓸어 내다가 무더기루 죽어도 괜찮지만, 네가 나온 건 좀 이상하단 말이야. 대학에 댕기는 아이덜두 나라에 쓸 사람이라구 빼놓는데 대학 선생님이 나올 턱이 없잖아? 그게 이상해서 묻는 거다.”

베개 위에 모로 엮힌 얼굴에는 무엇인가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다. 경석은 침대 위에 일어나 앉았다.

“으-口, 그건 말하자면 잘못된 점이다. 아까운 사람, 아깝잖은 사람, 그런 구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사람은 다 매한가지 아냐?”

경석은 말을 끊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 사람은 모두 형제다.”

㉔ 명룡의 얼굴은 돌아서 똑바로 위를 쳐다보고 한쪽 팔이 이마에 얹혔다.

“거, 다 하는 소리지. 우리 같은 사람이야 못생기구 돈 없구 일자무식이 아냐? 공부두 할 대루 하구, 돈두 있구, 자동차 타구 댕기는 사람들하구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 타구 지나가는 길을 손바닥이 닳도록 닦는 게 우리네 농군이다. 난 가만 생각하다가두 비감이 들 때가 있다. 무슨 이따위 팔잘 타구 났는지 모르겠더라.”

명룡의 입에서는 억양도 없는 얘기가 천천히 흘러나왔다. 경석은 그 한마디가 뼈에 사무치게 아팠다. 자기도 과거에 봉사를 요구하는 족속이었다. 우월감, 부모의 덕분으로 근대 합리주의 건축의 한 조각을 훔쳐다가 그것을 번뜩이고 그것으로 온 세상을 재고 잘났노라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더 봉사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인간의 고향을 떠나서 행패를 일삼는 탕아들 - 자기도 그 꽤거리였다. 갈수록 멀어져 가는 이역*, 그 이역과 고향 땅 사이에 성을 쌓고 도랑을 파고 이방인으로 행세하며 고토*의 원시에 침을 뱉는 일당이였다. 침을 뱉으면서 이를 침노하여 약탈을 자행하는 괴뢰치한들의 앞잡이 - 이것이 나 김경석이었다.

“애, 우리 제대하면 형제처럼 같이 살자.”

경석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튀어나갔다. 명룡은 결눈질로 힐끔 넘겨다보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경석은 상반신을 내밀었다.

“응?”

명룡은 눈을 감고 팔을 이마에 얹은 채 사이를 두고 대답하였다.

“죽는 날이 제대하는 날인데 살긴 뭘루 살아.”

경석은 도로 제자리에 드러누웠다. 눈을 지그시 감았다.

- 죽는다! 이명룡과 더불어 고지의 돌 밑에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

길은 그리로 트여 있었다. 헤란한테로 가는 길, 그쪽에는 [C] 길이 없었다. 이 길을 더듬어가면 그 저쪽, 아득한 피안에 헤란이 있음직도 하였다.

- 김성한, 「귀환」 -

*도강증 :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허가증.

*이역 : 제 고장이나 고향이 아닌 먼 곳. *고토 : 고향 땅.

43.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내적 독백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② [B]는 인물의 심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와 [B]는 서로 인과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 ④ [A], [B] 모두 인물의 외양적 특징을 부각하여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 [B]는 각기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그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44. ㉑ ~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명룡’은 경석이 전선에 나온 것을 의아해 하고 있다.
- ② ㉒ : ‘계원’은 ‘헤란’을 관료주의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다.
- ③ ㉓ : ‘헤란’은 현재 상황에 좌절감과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
- ④ ㉔ : ‘경석’은 ‘명룡’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 ⑤ ㉔ : ‘명룡’은 ‘경석’에게 감동받아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45. [C]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경석’이 ‘헤란’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군.
- ② ‘헤란’과 ‘경석’이 병원에서 곧 만날 것을 짐작하게 하여 희망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군.
- ③ ‘헤란’과 죽음도 함께하겠다는 ‘경석’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군.
- ④ ‘명룡’의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니 신념을 지키려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
- ⑤ ‘헤란’에 대한 ‘경석’의 마음이 달라질 것을 암시하여 두 사람 관계의 새 국면을 기대하게 하는군.

46.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김성한의 전후 소설은 인간의 윤리적 타락, 이데올로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 부정적 가치관의 범람, 인간의 존엄성 훼손 등을 문체 삼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인상을 탐구하고 있다. 이는 부정적 인물을 풍자하거나 긍정적 인물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① 자기반성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식인의 모습을 탐구하고 있다.
- ②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부정적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 ③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부정적 인물을 통해 인간의 윤리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부정적 가치관이 범람하게 된 현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타인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되는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긍정적 인간상을 드러내고 있다.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기를 끝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할 때, 소변 또는 혈액 샘플에서 금지된 성분이 어느 기준 이상 검출된 선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 선수로 판정하고 실격시킨다.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약물 복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약물을 복용했는데도 약물 복용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다. 통계학에서는 전자를 채택의 오류(거짓 양성 반응)라고 하고, 후자를 기각의 오류(거짓 음성 반응)라고 한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약물 검사관이 해당 선수로부터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하고 검사 기관은 신뢰를 잃게 되는 등의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자백하는 선수가 거의 없으므로 대가를 치를 일도 거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채택의 오류에 의한 대가는 잘 드러나지 않고 기각의 오류에 의한 대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은 고객에 대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고객들이 대출금을 미상환하는 일이 있을지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승인 기준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할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대출금을 미상환하는 일이 있을) 사람으로 판정하는 채택의 오류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대출금을 미상환하는 일이 없을) 사람으로 판정하는 기각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 주지 않아 영업 이익을 늘리지 못한 부분은 잘 드러나지 않고 대출해 준 후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해 손실을 입는 부분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약물 검사관이나 은행은 기준을 정할 때 ㉠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오류의 대가를 줄이려 할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대상들에 대한 이 두 오류는 서로 ㉡ 시소 관계에 있다. 즉, 채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기각의 오류가 늘어나고, 기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채택의 오류가 늘어나게 되므로 두 오류의 가능성을 함께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은 어떤 검출 시스템도 채택의 오류나 기각의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재분배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한쪽 오류로 인해 드러나는 대가에만 주목해 그 오류를 줄이려 하면 다른 쪽 오류가 커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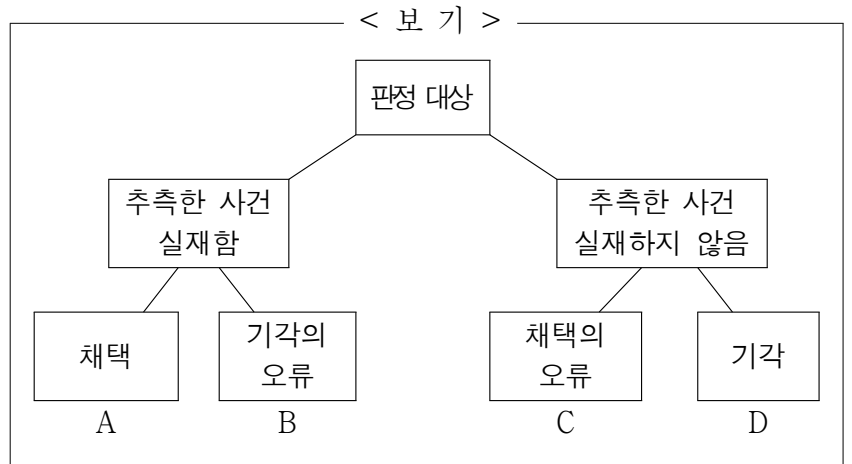
47.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의 내용들을 종합·비판하면서 이론화하고 있다.
- ② 유사한 개념을 다른 대상에 견주어 구분하고 있다.
- ③ 사례 분석을 통해 특정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시대별 양상을 통해 그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 ⑤ 상반된 이론을 비교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48. ㉠을 가장 적절하게 이해한 것은?

- ① 약물 검사관과 은행은 채택의 오류를 줄이려
- ② 약물 검사관과 은행은 기각의 오류를 줄이려
- ③ 약물 검사관과 은행이 상의하여 기준을 높기려
- ④ 약물 검사관은 채택의 오류를, 은행은 기각의 오류를 줄이려
- ⑤ 약물 검사관은 기각의 오류를, 은행은 채택의 오류를 줄이려

4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의 경우 대출해 주고 D의 경우 대출 영업의 기회를 가진다.
- ② A와 C는 일단 약물을 복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정하는 것이다.
- ③ B와 D는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사람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 ④ B를 줄이는 것은 약물 복용에 대한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 ⑤ C를 줄이면 약물 부정 선수를 놓치는 사례가 늘어난다.

50. ㉡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한 축구팀의 경기당 득점과 실점
- ② 시중 은행 금리와 은행 고객의 예금 수익
- ③ 버스 이용 승객 수와 버스 회사의 운행 수입
- ④ 하루 중 낮의 시간과 식물의 광합성 가능 시간
- ⑤ 모집 정원을 채워 선발할 때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